

## 윤인구의 생애와 교육사상 연구

정연식 (계명대학교)

금번 로고스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기로 하였으나, 막상 “윤인구의 생애와 교육사상 연구”라는 논문을 토론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분의 생애와 교육사상에 대하여 세무학을 전공하는 제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윤인구라는 분이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로 제가 토론할 연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이미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원고를 받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페이지를 읽어 가는 중에 저는 이런 무리한 토론배정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저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요 교육자이신 윤인구님(이하 ‘윤인구목사님’이라 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남은 저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읽는 동안 가졌던 저의 느낌과 본 연구에 대해 한두 가지 바라는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를 읽는 동안 저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자께서도 서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윤인구목사님은 우리나라의 교육계와 교계의 선구자로서 그 공로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인구목사님이 설립했던 부산대학교와 부산지역사회 그리고 총장으로 지냈던 연세대학교에서조차 윤인구목사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훌륭한 선배들의 업적을 기리고 이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가 부족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따라서 윤인구목사님이 우리나라 교육계와 기독교계에 기여한 공로를 밝히고 그 업적과 교육사상을 알리고자 하는 본 연구는 특히 최근에 교육계와 기독교계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중요한 연구라고 여겨집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업적과 정신을 남기신 윤인구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면,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더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훌륭한 업적과 정신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소개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숨은 인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인구목사님을 비롯하여 이러한 분들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금 세대는 물론이고 오는 세대에까지 귀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셋째, 본 연구에 대한 바람입니다만, 윤인구목사님의 생애 및 교육사상과 관련한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건이나 에피소드 등이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윤인구목사님의 생애과 교육사상을 알리는 데에 큰 목적을 두고 있기에, 업적과

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목회활동이나 교육활동 기간 동안의 각종 어록이 있다면 인용하면 좋겠고, 또 각종 업적에 대한 당대 또는 후대의 증언 등을 수집하거나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립부산대학교가 ‘목사님’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국립대학이라는 점과, 거기서 소정교회라는 교회가 설립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많은 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많은 감동과 교훈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윤인구목사님의 부산대학교 총장직 및 연세대학교 총장직 사퇴와 관련한 정황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으면 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어떤 부정적인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평가 등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는 윤인구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회자요 교육자의 생애를 알게 해 주신 연구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윤인구목사님의 업적과 정신을 후세에 알리고 이어갈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윤인구목사님과 같이 훌륭한 업적과 정신을 남겼음에도 후세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선배들의 삶과 정신을 이을 수 있는 연구들이 연구자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